보수 마친 국보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귀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탑 부재들 8월 1일 원주로 이송
법천사지 전시관 상설전시 예정
8월 10일 귀향 기념식 진행돼

1911년 일본인에 의해 무단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으로 고난
국립문화재硏서 5년 간 보존처리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반출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던 '승탑의 백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이 반출 112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쳐 보존처리를 마친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 부재들을 8월 1일 원래의 위치인 강원도 원주시로 이송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과 원주시는 8월 10일 오후 2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지광국사탑의 112년 만의 귀향을 기념하는 귀향식을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광국사탑 부재의 임시 보관처로 지정했며, 총 33개 부재 중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옥개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31개 부재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된 지광국사탑 부재는 복원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 기획전시 공간에 상설 전시할 계획으로, 관람객뿐만이 아니라 승탑이 원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예정이다.

화려한 만큼 더 아팠던 역사

국보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힌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和田常市)가 탑을 매입했고, 이를 당시 서울 명동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하게 만들었다.

1912년에는 이를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탑을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보존처리 중인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의 모습.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2016년부터 5년동안 보존처리가 이뤄졌으며, 8월 1일 탑의 부재가 원주로 돌아갔다.

6.25전쟁은 지광국사탑에게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 모습을 찾다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지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박리·생물 피해·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석탑을 완전 해체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체부재들을 일일이 기록했으며, 모르타르는 걷어냈다. 결실되어 없어진 부재에 대해서는 신석재로 새로 제작했고, 파손부재들은 접착했다.

새로 구해야 하는 석재들은 산지(産地)를 과학적으로 추정해 가능하면 그 산지에서 구해 조성 당시 사용된 석재와 가장 유사한 재질로 보존처리 했으며, 유리건판과 실측도면 등을 바탕으로 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실부분의 도상을 복원했다.

또한, 탑신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옥개석 파손부재 조각과 법천사지에서 발굴된 하층 기단갑석 조각을 과학적 조사와 고증을 거쳐 원래 위치에 복원했고, 1957년 수리 당시 잘못 복원된 옥개석의 방위와 추녀 위치를 바로잡는 등 과학적·인문학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지광국사탑의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되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지광국사탑은 보존처리 및 이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지원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향후 문화재청은 원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광국사탑이 보존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한 후 최종 복원위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지화 명장에 정명 스님 위촉

진우 스님, 8월 10일 위촉장 수여

조계종을 대표하는 전통지화 첫 명장에 비구니 정명 스님이 위촉됐다.〈사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명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종단 최초로 지화 명장에 위촉된 만큼 지화를 통해 전통을 이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후학 양성에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명 스님은 "명장에 위촉돼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정명 스님은 태경 스님을 은사로 1970년 수계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인 연등회 장엄도감, 불교지화장엄전승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보존회 이사장, 한국불교 비구니 꽃꽂이회 자문위원, 대한불교꽃꽂이연합회 자문위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과 가평 연화세계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강화 정족산성진지 복원 방안 모색한다

전등사·강화군청 공동주최
8월 18일 전등각서 세미나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와 강화군청(군수 유천호)은 공동으로 오는 8월 18일 오후 1시 전등사 전등각에서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과 백산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선 후기 정족산 사고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정족산성진지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고려 가궐지로 알려졌던 정족산성진지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건물지를 고증하고 복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최종규 한울문화재연구원장)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출토유물 특징(박미화 수도문물연구원 유물관리팀장)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신웅주 조선대 교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김우웅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장) 등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이천우(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현남주(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황보경(세종대 박물관 실장), 안선호(원광대 교수), 안대환(충북대 교수)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경주 열암곡 부처님 어떻게 바로 모실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8월 18일 학술대회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8월 1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주 남산과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를 주제로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주 남산의 불교사적 의미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은 △신라불교와 경주 남산의 의미(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남산 창림사와 신라 문성왕대(839-857)의 불교(박광연 동국대 WISE캠퍼스 국사학과 교수) △경주 남산 불교유적의 특징과 성격(김동하 문화재전문위원) △열암곡 부처님을 어떻게 바로 모실 것인가: 성보 문화재의 참배와 순례의 가치를 중심으로(무진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등이다.

토론자로는 김구석 경주남산연구소장,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 김재경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경주 남산의 불교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곳의 가람 및 문화 유물의 특성을 살피며, 이를 토대로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인도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
인도사상사



깊이와 재미를 함께 갖춘 인도 사상 입문서!
장구한 세월 동안 인도인들의 삶 속에 스민 역사, 문화, 종교, 철학, 영성 등을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상세하면서도 쉽고, 흥미로우면서도 치밀하게 보여준다.
존 M. 콜러 지음, 허우성 옮김/신국판/양장/792쪽/값 55,000원

관세음보살님 따라 그리기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해주시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님과 42수주 진언을 그리고 색칠하고 외움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고 불보살의 가피를 받게 된다.
조미애 그림/국배판/무선/72쪽/값 14,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무선/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